

# '26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6-1	1.21	회의실	9/12	4	1	14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박종수·박양우·설제학·양지현·유한별·이경주·이미진·정인영·정희(9명)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서준배(편성제작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7	2	0	0	9	0	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9	0	0	9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속의 과정이나 주민 공감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두길 바람	<뉴스데스크> “광주 가치 희석 우려..자치 주권 확보가 숙제”(1.22), ‘투표’ 택한 부산·경남, ‘속도’ 내는 광주·전남(1.28), <시사톡 라이브> 광주·전남 통합 논의, 현재 어디까지(1.27) 등 방송 조치	'26.1
"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시도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속도전 안된다” 광주 교육계 반발(1.23), 전남광주특별시, 글로벌 불확실성 개선해야(1.26), ‘11조 국세 이양’ 통째 삭제..알맹이 빠진 특별법(1.30), 전남 ‘총공세’ vs 광주 ‘침묵’(2.2), 후보도 모르는데..통합교육감 선거전 시작(2.3), <시사톡 라이브> 광주전남 통합 논의, 교육 현장의 시선은?(1.28) 등 방송 조치	"
"	판다 유치에 우치공원 활성화와 광주 광도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바람	<뉴스데스크> 푸바오 광주 오나?..정부 “재입국 협상 중”(1.22), “광주에 판다 오도록” 지원 사격한 중국대사(2.6) 등 방송 조치	"
"	광주 대표도서관 참사의 문제점과 대책, 사고원인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책임에 대해 감시해야 함	<뉴스투데이> 경찰, 광주시 관리·감독 부실까지 들여다본다(1.16), ‘도서관 붕괴 참사’ 30명 수사 중(1.28), <5시 뉴스> 광주경찰, ‘도서관 붕괴’ 광주시 압수수색(1.15) 등 방송 조치	"
"	광주 대표도서관 제대로 된 수사와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보도해 주기를 바람		"
"	행정통합 관련 공론의 장을 마련하길 바람	<시사용광로> 행정통합이 바꿀 호남의 미래는?(1.22),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아야 할 것은?(1.29), 생방송 타운홀 미팅(2.10) 등 방송 조치	"
"	뉴스 진행 시 아나운서의 턱 그림자를 줄이기 위한 조명 보완 필요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모니터링 점검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아이템 다뤄주길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승리를 위해 도약한다-시페퍼스(1.22),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의 미래를 묻다(1.27) 등 방송 조치	"
"	의향, 예향의 가치 조명하는 방송 바람	디지털콘텐츠 ‘5.18 진상규명에 헌신했던 이해찬의 30대 의원 시절’(1.26), 철학자 박규용이 본 민주진영 대통령들 vs	"

	보수진영 대통령들(2.7), '다시 시작된 미국 망명생활'(2.8), 영산강 캠페인 광주 호가정 편(2월) 등 방송 조치	
합계	9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속의 과정이나 주민 공감 형성의 중요성에 관해 관심을 두길 바람(박종수)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취재 보도하겠음	○		
"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시도민의	행정통합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보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 바람(설제학, 양지현, 정인영)	도가 아닌 다양한 관점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취재 보도로 지역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음			
"	판다 유치에 우치공원 활성화와 광주 관광도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바람(양지현)	푸바오가 광주에 오는 과정과 의미를 잘 살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		
"	광주 대표도서관 참사의 문제점과 대책, 사고원인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책임에 대해 감시해야 함(박양우, 이미진)	사회적 참사의 경우 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취재 보도에 임하겠음	○		
"	광주 대표도서관 제대로 된 수사와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보도해 주기를 바람(유한별)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취재와 보도를 이어 나가겠음	○		
"	행정통합 관련 공론의 장을 마련하길 바람(이경주)	행정통합의 부족한 시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보도와 토론을 통해 담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음	○		
"	뉴스 진행 시 아나운서의 턱 그림자를 줄이기 위한 조명 보완 필요(시청자 의견)	조명과 분장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음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아이템 다뤄주길 바람(정회)	지역 밀착형 아이টে을 발굴하고 방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의향, 예향의 가치 조명하는 방송 바람(양지현)	의향과 예향의 지역 가치를 조명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겠음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6년 1월)

일 시	2026년 1월 21일(수) 17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 원 회	박양우 · 박종수 · 설제학 · 양지현 · 유한별 · 이경주 · 이미진 · 정인영 · 정희 위원(9명)	
	회 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서준배 편성제작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다. 광주는 포근할 줄 알았는데 광주도 만만치 않아. 광주천변에 잠깐 나오니 바람이 엄청 불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공사다망한데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린다. 26년 1월 첫 회의다. 시청자위원님들 한해 다 강건하고 마음이 편하시길 바란다. 사장님,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들도 새해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올해도 위원회가 내실 있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잘 협조해주셨는데 올해도 다른 어느 방송사보다 모범이 되는 시청자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월 위원회의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병오년 첫 시청자위원회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여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 행정통합 이슈가 올해 시작되면서 지역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됐다. 거기에 맞는 기획과 구상을 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책임을 다하겠다. 특히 문화적인 동질성에 맞는 기획을 해보자. 라고 내부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영산강, 무등산 등 남도의 문화적 동질성 측면에서 역할을 한다면 시도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찬반 여론이 있으므로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주요 업무 보고를 해달라.
- 서준배 편성제작팀장 : -콘텐츠본부 업무보고를 하겠다. 주요 실적으로 먼저,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12월 24일 양림동 크리스마스 축제를 LTE 연결해 방송했다. 2026년 말의 해 아이템으로 말바우시장을 연결했고, 영광 승마 체험 등을 방송했다. <광주MBC 보다> 신지동철 코너에서는 12월 15일 국민의힘 안태욱 시당위원장 편, 1월 5일 신정훈 국회의원 편, 12일 정준호 국회의원 편을 방송했다. 12월 22일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지원작이기도 한 <잘파들의 진:소리를 위하여>를 방송했고, 남구청과 양림오픈스튜디오 지원 계약을 했다. 디지털 부문에서는 방문진 제작지원으로 206건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료화했으며, <한국의 괴물>이 KCA가 지원하는 AI, 디지털 기반 방송콘텐츠 기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주요 계획으로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제작지원 공모 관련해 기획 회의를 진행한다. 1월 22일 계열사 편성책임자 회의에 이주형 팀장이 참석하고, 1월 23일 AI 특집 <우리가락 우리문화> 관련해 이주형 팀장이 MBC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탐나는 TV>에 출연할 예정이다. 디지털 특집으로 조선대병원과 함께 '암 극복 프로젝트'를 준비할 계획이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한시 계약직 기자 두 명을 채용했다. 2026년 1년간 일할 계약직 기자이며, 취재 보도를 시작했다. 도서관 붕괴 사고 단독보도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선거 2차 공동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 선호도 조사인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필요한가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지역민 2/3가 찬성했다. <시사용광로>에서는 1월 8일 '2026년 광주 변화와 비전은?', 1월 1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경쟁력과 과제는?'을 주제로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신년 기획을 준비 중이다. 가제로 행정통합, 시도민에게 듣는다 기획 토론 3부작인데, 만민공동회 형식으로 시도민 집담회를 마련할 것이다. 이 토론은 현재 주민투표 등 없이 공청회가 진행되는데 시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명절 전후에는 '행정통합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획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상이다.
- 원승연 경영본부장 : -경영본부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준비 중이다. 전 직원이 AI 플랫폼을 쓰게 환경을 구축하고, 오프라인 교육도 시행하고자 한다.
- 박양우 위원장 : -앞으로는 AI 없이는 안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조심해야 할 게 있다. AI가 제공한 정보가

전부 사실인 것처럼 잘못하면 오버하기 쉽다. 모르고 그대로 받아쓰면 콘텐츠 만드는데 큰 코를 다치니까 체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AI는 다른 나라는 물론 기업과의 경쟁 등으로 안 쓸 수가 없다. 인간 배제가 점점 더 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AI가 앞으로 가져올 것들에 대해 고민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보고사항에 관한 질문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시청하시고 의견이나 제안 등 말씀을 해주길 바란다.

- 정희 위원 :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70% 찬성이 나와 다행이다. 만민 공동 형식으로 의견을 모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아직 기획 단계라 구체화하지 않았는데 제작진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진행자와 전문가가 시도민이 궁금한 것을 풀어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박양우 위원장 : -통합하는 게 좋은 건가? 그냥 통합만 한다면 의미가 있을까? 완전 구조를 개편해서 행정효율도 두세 단계인 것을 한 단계로 낮추기도 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쉽지 않을 것이다.
- 박종수 위원 :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속도를 내는 이유를 살펴봤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들어 왜 급속히 속도를 내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 배경에 놓인 현실적인 정책 환경과 국가 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통합에 성공한 지역은 정부로부터 특별법 제정, 대규모 국비 지원, 전략 산업 배치, 공공기관 이전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뒤늦게 통합에 나서는 지역은 형식적인 통합 성과만 남고 실질적인 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제목인 '1등과 2등 선물은 다르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정책 보상 구조를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비유로 활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상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갑작스럽게 가속화된 이유를 지역 내부의 화합이나 정치적 이벤트 때문이 아니라, 다른 권역들이 이미 메가시티 구도를 선점해 나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 산업 공동화, 재정 여력의 한계라는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행정체계로는 중앙 정부와의 협상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통합을 통해서만 광역 단위의 전략적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된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좋았던 점은 통합 논의를 감성적 구호가 아니라 정책 현실의 언어로 풀어냈다는 점이다. 복잡한 행정통합 문제를 선점 효과와 정책 경쟁이라는 틀로 설명함으로써 지금 시점이 중요하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합을 미루거나 회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결정자나 지역 리더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에게도 문제의 긴박성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된다. 반면 아쉬운 점은 통합의 속도와 전략적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대화, 지역 간 자원 배분 갈등, 기초자치단체의 상대적 소외와 같은 부정적 측면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대규모 국비 확보나 국가 전략사업 유치가 실제로 주민 개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생활 밀착형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중앙정책 중심의 논리로만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는 만큼 속의 과정이나 주민 공감 형성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방송해주길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광주문화방송 뉴스들이 날로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뉴스는 새로운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는 부조리한 것들을 찾아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유도하는 감시 기능 또한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런 차원에서 1월 14일 도서관 붕괴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는 매우 적절했고, 잘 취재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서의 용접 안전관리 부분과 관련, 추상적 조항의 문제점과 부품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한 조항의 필요성, 그리고 안전관리 담당자의 소관 문제와 안전교육 등 실제적인 문제점을 잘 지적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화재 원인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알려줬다. 다만,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책임에 관한 문제점을 담당자의 면피성 인터뷰로 마감했는데, 한 발짝만 더 파고 들어가 종합건설본부 등 문제점과 대책까지 짚어주길 바란다.

-1월 14일 담양군의 태양광 허가 보도와 1월 15일 무안공항 인근 MRO 항공 특화 산단 조성의 의혹 보도도 다양한 취재원을 동원하여 잘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이들 행정 처리와 관련,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조치가 일반시민이 보기에 분명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였다. 그렇다면 도서관 붕괴 사고

보도와 관련하여 아쉬웠던 것처럼 무안군과 담양군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을 좀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더라면 더 깊이 있는 뉴스가 되었을 것 같다. 관련 업체의 문제점은 지방정부가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서 지방정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마땅히 취재의 칼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 설제학 위원 : -1월 15일에 방송된 <시사용광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경쟁력과 과제는?' 편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다뤘다. 인구 감소, 산업 정체 등 지역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광주·전남이 하나의 경제·정책 단위로 산업 유치, 재정 확대, 행정효율 개선 등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충분한 논의와 소통, 특별법 준비 등이 중요한 과제로 거론됨을 알게 되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총론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도해주길 바란다.

○ 양지현 위원 : -2026년 1월 8일 <시사용광로>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신년 대담을 진행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더 다뤄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지방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시도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행정통합에 관해 다뤄주길 바란다.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군공항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공항 부지 재개발 시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아닌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 유치 등 좋은 계획이 준비되면 좋겠다. 또한 판다 유치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우치공원의 활성화와 광주 관광 도시에 이바지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바란다. 의향·예향 남도의 뿌리를 찾아서 떠난 기행 <잊혀진 나라 마한 여행기>라는 제목의 광주MBC 연중 캠페인에서는 영산강의 겨울 풍경과 유적지의 모습을 담은 영상미가 뛰어났다. 역사 기행 에세이인 책의 분위기와 잘 어울려져 한 편의 짧은 다큐멘터리를 본 듯한 느낌을 줬다. 영상에 등장한 장소들을 시청자가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지도나 코스 정보도 소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향, 예향의 가치를 조명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방송을 해주길 바란다.

○ 유한별 위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경제·행정 효율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정체성 훼손과 재정 부담 등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찬성의 주요 논거는 통합시 인구 320만, GRDP 150조 규모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해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정부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 중복 업무 해소, 연 500억 원 이상 예산 절감, 공공서비스 효율화로 지역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는 점,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두 지역의 산업·정책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의 주요 논거는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 약화, 지역 간 갈등 심화 가능성과 광주 중심 '빨대 효과', 전남 서부권 소외, 초기 비용 증가와 재정 악화 우려다. 또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특례 마련이 미흡해 반발 가능성도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경제적 시너지와 효율성 기대가 크지만, 지역 정체성·재정·공론화 등 복합적 쟁점이 남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 광주MBC가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

-광주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의 아픔이 제대로 가시기도 전에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가 일어나 다시 한번 지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현재까지 유족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다. 발주처인 광주광역시 법적 책임 등을 회피하고 사고 관련 정보 공개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지대가 필요 없는 특허 공법이 적용된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정작 이 공법의 신기술 평가 항목이 0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족들의 상처가 더 깊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수사과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MBC에서 이를 심도 있게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

- 이경주 위원 : -<시사용광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경쟁력과 과제는?’ 방송에서는 지역사회 최대 화두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국회의원, 지방정부 관계자, 정부 위원회 전문가를 초청해 심도 있는 토론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2월 입법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앞두고 시도민이 궁금해할 재정 특례와 산업적 실익을 짚어준 점이 돋보였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와 2026년 6월 지방선거 일정이 맞물린 현재가 통합의 최적기이며, 지역소멸과 산업 정체라는 생존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 특히, 특별시 출범 시 실·국 조직 권한, 인허가권 등 중앙 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보와 광주의 AI·인프라와 전남의 재생에너지·에너지 자원이 결합하여 메가시티로의 부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양도세의 지역 활용,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 파격적인 재정 특례가 법안에 담기는 등 1호 행정통합에 따르는 정부의 지원이 큰 만큼 현재는 향후 발생할 현실적인 성장통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방 붕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한 전략적 결단과 속도감 있는 실행에 힘을 실어야 할 시점이다. 광주MBC가 이번 행정통합 과정에서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시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는 진정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통합의 역사를 쓰는 현장에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 이미진 위원 : -광주 대표도서관은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 세르비아 건축사 브러니슬라프 레딕의 작품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로로 168m에 달하는 기다란 형태의 건축물로 광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는데 이번 참사로 인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슬픔과 상실감만 안겨 주었다. 게다가 지지대가 필요 없는 특허 공법이 적용된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정작 이 공법의 신기술 평가 항목이 0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사 안전과 관련된 평가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공사장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본 상황인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낀다. 광주MBC가 이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시사용광로> ‘2026년 광주 변화와 비전은?’ 편을 보면 2026년 광주 변화의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생경제 회복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 제품 우선 구매제 강화, 청년·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는 포용 복지 강화다. 복지예산 5,83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6.1% 편성이다. 또, 2026년 2월 준공되는 복지행정타운 및 장애인복지관·평생학습센터 신설, 국가유공자 명예 수당 인상 등 세대별 맞춤형 복지 확대다. 세 번째는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이다. 아이바른성장센터·자연휴양림·복합문화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족도시 및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이다. 광주역세권 2단계 개발, 철도망 확충, 도로·친수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업 과정에 있어 철저한 시민들의 관리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통해 누구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2026년에 오기를 바란다.
- 정인영 위원 : -이번 <시사용광로>는 2026년 지방선거와 특별법 제정이라는 중대한 분기점을 앞두고,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여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특히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부터 중앙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전남도 행정 부지사까지 정책 결정의 핵심 라인을 한자리에 섭외하여 통합의 당위성과 특별법의 실무적인 쟁점들을 깊이 있게 짚어본 점은 정보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인 탁월한 구성이었다. 다만 행정통합의 긍정적인 미래상과 추진 속도를 강조하는 데 방송의 비중이 쏠리다 보니, 통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지역 간의 구체적인 갈등 조정 방안이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실효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졌다. 5극 3특 체계나 재정 인센티브 등 시청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행정 용어들을 전문 용어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통합 전후의 변화를 시각화하여 설명했다면 사안의 복잡성을 해소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추진 주체들의 목소리에 비중을 둔 만큼 통합에 신중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까지 함께 제시했다면 더욱 건설적인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송이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주민투표 등 실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속해 다뤄주는 후속 기획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정희 위원 :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12월 24일 양림동 크리스마스 축제를 소개했다. 저녁 조명이 켜지는

순간의 분위기가 특히 인상 깊었고, 공연과 퍼레이드가 다양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좋아 보였다. 축제 분위기가 과하지 않아 산책하듯 가볍게 방문하기에도 좋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편안하면서도 즐거운 축제라는 느낌을 잘 전달한 것 같다. 1월 7일에는 2026년 말의 해 아이템을 방송했다. 말바우 시장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승마 체험 등 현장감 있는 코너가 있어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TV방송과 별도로 유튜브 라이브를 함께 활용한 실시간 소통 방식이 돋보였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아이템을 다뤄주길 바란다.

-1월 8일 <시사용광로>에서는 강기정 시장이 광주의 장기적인 비전과 앞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설명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서 지역의 미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시청자들도 행정통합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광주가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1월 1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경쟁력과 과제?’ 편에서는 행정통합이 광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을 조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법 제정이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같은 긍정적인 변화의 기반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박양우 위원장 : -기타 시청자 의견으로 뉴스에서 아나운서 얼굴 모습에서 턱 그림자가 심해 보여 조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그런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관해 잘 피드백해 주고 계시는데,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활용 또한 잘해주길 바란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